



한국기독교장로회



경동교회

Kyungdong Presbyterian Church

제75년 13호

사순절 다섯째 주일

2020년 3월 29일

예배시간 09:30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 노진숙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04(장충동 1가)

Tel: 02-2274-0161~3 Fax: 02-2277-0798

<http://www.kdchurch.or.kr>

전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F. Couperin) **오르가니스트: 신채우 집사**

모임 (*는 일어서서)

***모임찬송** 82장(성부의 어린 양이) **다함께**

***예배부름** **목 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시고,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 병을 낫게 하시려고 매를 맞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사53:4-5),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시다.
회 중: 아멘.

***송영** **오르가니스트**

***시편교독** **목 사:** 주님, 내가 깊은 물 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회 중: 주님,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목 사: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회 중: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목 사: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회 중: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아멘(시 130편).

경배찬송 144장(예수 나를 위하여) **다함께**

죄의 고백 **목 사:**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대하 7:14)는 주님의 약속, 의지하여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회 중: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올바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대하 6:27).

응답송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경동찬송 11장) **다함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하신 주여

침묵의 기도 **다함께**

용서의 선언 **목 사:**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시 86:5) 주님께서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음을(민 14:18)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회 중: 아멘.

응답송 **거룩하신 하나님**(경동찬송 32장)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사 영원하신 주여 자비 베푸옵소서

말씀

구약의 말씀 **에스겔서 37:1-14** **배영호 목사**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 놓으셨다. 그런데 그 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 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갓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 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갓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 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 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 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

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 낼 그 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 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응답송

변함없는 주의 말씀(경동찬송 25장) 1절 **다함께**
변함없는 주의 말씀 듣고 살아라 우리 말과 우리 맘이 진실하여라

서신의 말씀

로마서 8:6-11 **박연길 목사**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응답송

변함없는 주의 말씀(경동찬송 25장) 2절 **다함께**
생수 되는 주의 말씀 먹고 살아라 우리 삶에 기쁜 샘이 솟아나리라

*복음의 말씀

요한복음서 11:38-44 **목사**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여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응답송

변함없는 주의 말씀(경동찬송 25장) 3절 **다함께**
등불 되는 주의 말씀 믿고 따르라 어둔 세상 걸어가도 안전하리라

친교와 소식		목사
기도		장용준 장로
응답송		오르가니스트
특송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M. W. Moody)	김준홍 교우
설교	‘육신에 속한 생각과 성령에 속한 생각’	채수일 목사
기도		설교자

보냄

봉헌과 찬송	151장(만왕의 왕 내 주께서)	다함께
*봉헌기도		목사
*보냄찬송	635장(하늘에 계신)	다함께
*축도		목사
*송영		오르가니스트
후주	주가 죽으신 십자가(L. Mason)	오르가니스트

『정동찬송』은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알리는 말씀

1. 주일예배 영상 안내

▶교회 홈페이지: www.kdchurch.or.kr ▶유튜브 검색: 경동교회

2. ‘코로나19 극복 긴급구호헌금’ 안내

▶계좌: 우리은행 1005-403-855152 한국기독교장로회경동교회
(*‘코로나19 극복 긴급구호헌금을 입금하실 때 ‘이름’과 함께 ‘구호’를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호)

3. 헌금(주정, 십일조, 감사, 목적헌금) 안내

▶계좌: 우리은행 1005-403-855152 한국기독교장로회경동교회
(*반드시 헌금자를 기명하여 송금을 부탁드립니다.)

특별봉헌 3월 15일

감사헌금

김수평 · 임문규(범사), 박찬순(십일조), 서경국(감사), 이원우, 이하원(감사), 정동수(생일 감사), 채수일 · 김경숙(범사)

지정헌금 - ‘코로나19 극복 긴급구호헌금’

곽병선 · 지은숙, 길성도, 김영의, 김희준(이), 민계식 · 이해자, 손수인, 심화섭, 여규엽 · 송영주, 우관호 · 이가영, 윤기호 · 신은애, 이건희, 이광택 · 김정례, 이근배 · 정성혜, 이명희, 이번, 이성진, 이재인 · 편순남, 이재진 · 김순식, 이재학 · 김필연, 이정옥, 이종인 · 이연숙, 이지수 · 최요환, 이내현 · 조미현, 주숙현 · 이재욱, 채수일 · 김경숙, 최문자, 최봉덕, 최종학 · 임예순, 홍기선

돌아오지 못하는 길

박종화 목사

십자가로 가는 길은 부활한 다음에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삶, 괴로움, 아픔을 버리지 마십시오. 버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단 지나간 세월을 향해서 거꾸로 살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앞의 길은 희망과 생명, 기쁨이 있는 하나님 나라이고 제 뒤에 있는 길은 십자가라 이름하는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을 향해서 살지 마시고 고난을 업고 사십시오. 교회가 몸입니다. 상징적으로 교회의 등에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물든 악한 과거는 제가 등에 지고 버리지 않겠습니다.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 앞으로는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부활의 아침이 있음을 알고 부활을 향해서 십자가 지고 살겠습니다. 그것이 수난입니다. 수난은 과거를 버리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픔을 지고 죽음까지도 어깨에 지면 부활을 맞게 됩니다.”

고난당하고 수난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십시오. 지고 오십시오. 내가 같이 져 드립니다.”

부활절 아침을 향해서 함께 두벅두벅 걸어갑시다. 그곳에 가면 또 하나의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순절, 아프지만 우리 어깨에 짐시다. 부활을 향하여 나가면서 짐시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박종화 목사, 『주일마다 나누는 하늘양식』 대한기독교서회, 2015, 223-224.)

다음 주일 말씀

4월 5일(종려주일)

성 경: 구 약(이사야서 50:4-9)
서신서(빌립보서 2:5-11)
복음서(마태복음서 26:14-25)

설 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채수일 목사